NH-Amundi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1415호 (2026.11.03~2027.11.02)

HANARO

ETF Monthly

2026년 11월

앤트로픽(ANTHROPIC)이 온다



Gemini 제작 이미지

Contents

01. **HANARO Insight**

26 3Q 빅테크 실적발표 요약

앤트로픽이 온다

02. **11월 추천상품**

HANARO 미국에이전틱AI TOP2+

03. **HANARO ETF 수익률 TOP5**

앤트로픽이 온다 – '26 3Q 빅테크 실적발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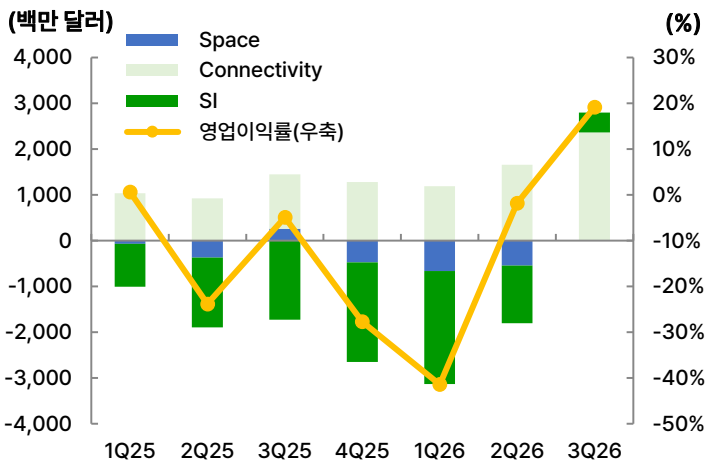
지난 10월 20일 스페이스X를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등 AI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들 기업의 실적은 AI 인프라 투자의 규모와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인 만큼,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벤트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AI 컴퓨트 사업이 매출의 절반을 넘어선 스페이스X까지 가세하며, AI 인프라 시장의 지형 변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알파벳과 아마존의 발표를 끝으로 일단락된 이번 빅테크 실적 시즌의 특이사항과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 스페이스X (10/20) –AI사업부 전사 매출의 절반이상으로 확대

스페이스X는 26년 3Q 실적 발표에서 매출 146억 달러(+161% YoY)를 기록하며 급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 27.9억 달러(흑자 전환), EPS 주당 0.35달러(예상 주당 0.18달러)를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전 사업 부문(Space/Connectivity/SI)에서 매출 성장세 및 수익성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로켓 관련 다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향후 AI 컴퓨팅 수요의 확대 및 우주 통신 인프라의 확장에 힘입어 27년 1Q 매출액 가이던스를 330억~370억 달러로 제시하였습니다.

스페이스X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끈 사업은 SI(Super Intelligence. 구 AI) 부문입니다. SI 부문은 26년 3Q 매출 75.6억 달러로 YoY +830%, QoQ +195%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약 20% 이상 상회했습니다. 부문 내 AI 솔루션 및 인프라 임대 사업 매출이 70.2억 달러를 기록하며 2Q 체결된 대규모 CSA(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이 실제 매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가동 컴퓨팅 용량은 1.7GW로 증가했으며, 임대 단가 역시 기존에 제시했던 와트당 30~50달러 범위를 상회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실질 영업이익은 16억 달러, 이익률은 65.5%로 2Q 대비 상승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1) 수요 초과에 따른 임대 단가 상승, 2) 앤트로픽, 구글 등 우량 고객 중심의 높은 CSA 수익률, 3) Cursor, Grok Bot 등 견조한 내부 수요 등의 요인들에 힘입어 신규 설비의 투자 회수 기간이 현재 1년 미만이고 27년에는 6개월까지 단축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초과 수익에 기반한 AI 인프라의 높은 수익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스페이스X는 현재 2.2GW의 컴퓨팅 용량을 26년 말 2.5~3GW, 27년 말 13GW로 확대하는 매우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 사업부별 영업이익 및 전체 영업이익률



출처: SpaceX, NH-Amundi자산운용 (2026.10)

스페이스X 실적 및 특이사항 요약

구분	내용
실적	매출 전년 대비 161% 늘어난 146억 달러, 영업이익 28억 달러로 흑자 전환. 컨센서스 상회, 어닝 서프라이즈
포인트	AI 인프라가 최대 매출 부문으로 등극, AI 부문 매출은 8.13억 → 75.6억 달러로, 비중은 약 15% → 약 52%로 급증함. 스타링크의 성장세도 지속되어 분기 최초 50억 달러 매출 돌파
특이사항	실적보고서 상 특정 고객의 3Q 매출 비중 34.5%를 차지했으며 앤트로픽으로 추정됨. 미국 정부를 넘어선 최대 고객

출처: SpaceX, NH-Amundi자산운용 (2026.10)

앤트로픽이 온다 – '26 3Q 빅테크 실적발표 요약

■ 메타 실적발표 (10/21) – 개인용 AI에이전트 서비스와 프론티어 모델 출시

메타는 21일(수) 26년 3Q 실적 발표에서 646억 달러(전년비 +26%) 매출을 발표, 예상치(633억 달러)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광고 노출 수 및 광고 단가가 두 자릿수 전년대비 성장세를 유지하여 나타난 광고 매출의 전반적 성장이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소송 관련 일회성 비용과 AI로 대표되는 R&D 비용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37% 감소한 1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동사는 소송 비용을 제외할 경우 전년대비 +11% 증가했음을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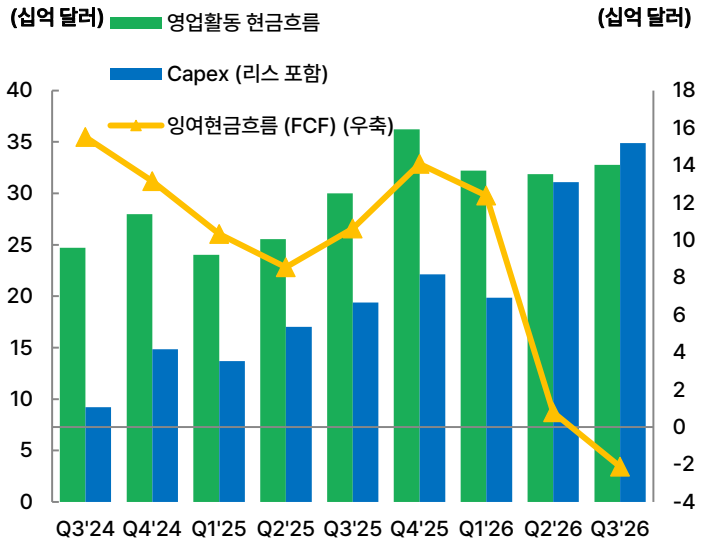
이번 실적 발표에서 메타는 AI를 사업 전반에 활용함으로써 성과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I를 활용한 광고 및 컨텐츠 추천 알고리즘 개선 및 광고주 대상 AI 도입 확대를 통해 광고 지출과 앱 광고 전환율이 증가한 점이 광고 부문 매출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메타는 향후 에이전틱 AI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빅테크들이 기업용(B2B) 에이전트 시장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메타는 개인 사용자를 겨냥한 소비자용(B2C) 에이전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차별점 입니다. 실제로 8월 출시한 개인 에이전트 'Muse'는 6주 만에 미국,캐나다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설치하며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모델 측면에서도 효율성 중심의 Muse Spark에 이어 복잡한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는 Muse Wonder 및 Muse Wonder Full을 발표하며 메타는 에이전틱 AI의 기반이 되는 프런티어 모델 개발사로서의 경쟁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투자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3분기 CAPEX는 전년 대비 약 1.8배 늘어난 349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잉여현금흐름(FCF)은 -21억 달러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메타는 2026년 CAPEX 가이던스 하단을 1,350억 달러로 상향했으며, 내년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프런티어 모델 기술력에 더해, 일간 이용자 수십억 명에 달하는 인스타그램, 스레드, 왓츠앱 등 자사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배포 채널과 자체 AI 인프라까지 갖춘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AI인프라 투자 규모가 막대한 만큼, 에이전틱AI서비스 등이 언제 수익에 기여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META 현금흐름 및 CAPEX 추이



출처: META, NH-Amundi자산운용 (2026.10)

META 실적 및 특이사항 요약

구분	내용
실적	매출은 26% 증가한 646억 달러로 컨센서스 633억 달러를 상회, 소송비용 제외시 EPS 성장세 지속
포인트	8월 출시한 메타 뮤즈 초기 흥행 성공 첫 프론티어 모델 Muse Wonder 출시
특이사항	2026년 CAPEX는 1,350억~1,450억달러 3분기 CAPEX 349억 달러, FCF -21억달러

출처: META, NH-Amundi자산운용 (2026.10)

앤트로픽이 온다 – '26 3Q 빅테크 실적발표 요약

■ 마이크로소프트 (10/28) – 투자부담에도 양호한 현금흐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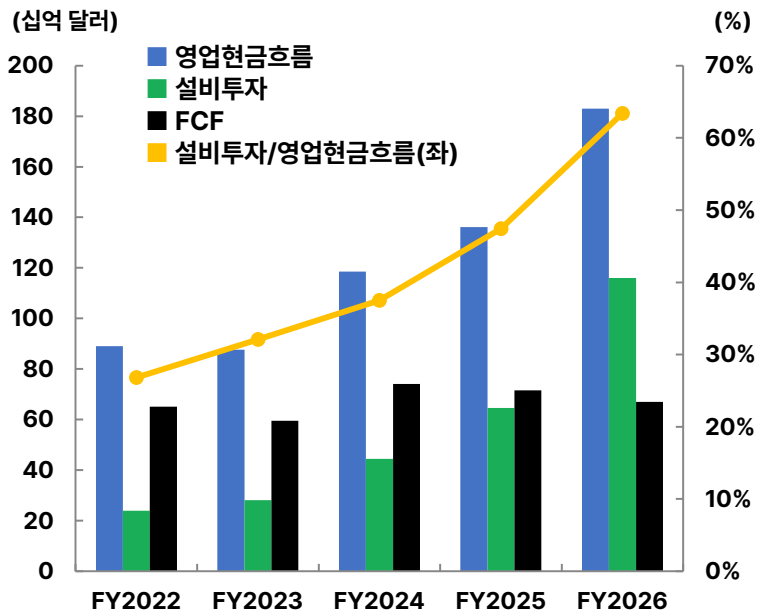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는 회계연도 27년 1Q(26년 7~9월) 실적 발표에서 매출 922.8억 달러(+19% YoY)를 기록하며 기대치(906.2억 달러)를 상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459.2억 달러(+21% YoY)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 역시 49.8%를 기록하며 컨센서스(48.6%)를 상회했습니다.

호실적을 이끈 것은 역시 클라우드 플랫폼인 Azure입니다. Azure는 매출은 331.7억 달러(+48% YoY)로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외부 설비 공급 병목으로 인한 CAPEX 집행 지연에도 불구하고 기존 GPU 인프라 효율성 제고, CPU 인프라 수익화 개선, 그리고 고성능 AI 모델 수요에 따른 토큰당 매출 및 CAPEX 당 매출&이익의 상승으로 성장폭은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B2B 시장을 중심으로 에이전틱 AI들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AI 제품 Copilot에 대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채팅, Cowork, Autopilot, Code 기능을 모두 통합시킨 단일 제품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전틱 AI를 통합적으로 구축,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인 마이크로소프트 Foundry 역시 고객 수가 늘어나는 등 MS는 기업용 AI 밸류체인에서 필요한 서비스, 플랫폼 등을 모두 제공하며 영역 확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사의 플랫폼에서 최첨단 외부 모델/자체 MAI 모델/오픈 웨이트 모델을 함께 제공하여 최적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MS의 에이전틱 AI 전략은 AI 모델 성능 경쟁이 과열되더라도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위치로 평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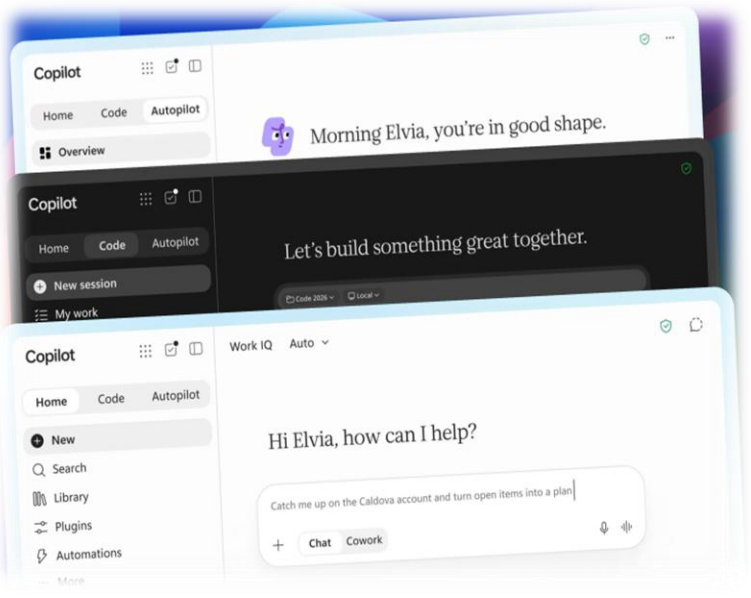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는 현금흐름 측면에서 타 빅테크들과 달리 FCF가 (+)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독형 소프트웨어(Office)의 고마진,선수금 구조가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금융리스와 네오클라우드를 활용해 투자 부담을 장기간에 분산시킨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현금 흐름 및 설비투자



출처:, Microsoft, NH-Amundi자산운용 (2026.10)

원앱으로 통합된 Microsoft Copilot



출처: Microsoft, NH-Amundi자산운용 (2026.10)

앤트로픽이 온다 – '26 3Q 빅테크 실적발표 요약

■ 알파벳 (10/28) – 클라우드의 성장세 지속되나, 투자 부담과 본업 우려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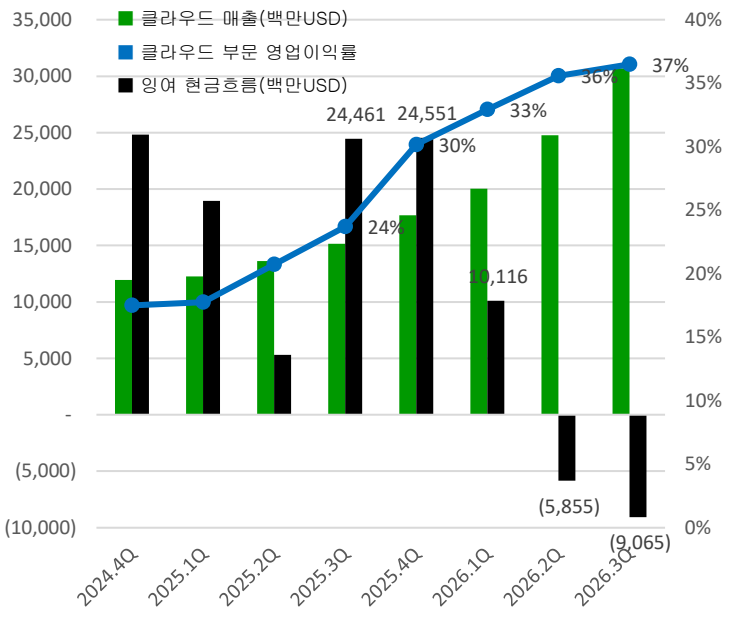
알파벳은 26년 3Q 실적 발표에서 매출 1,275.7억 달러(+24.7% YoY), 주당순이익 2.12를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부문 매출액의 경우 예상치(288.1억 달러)를 상회하는 307.1억 달러(+102.6% YoY)를 기록한 것과 더불어 영업이익률 역시 전년대비 +12.5%p 상승한 36.2%(기대치 33.9%)를 기록하며 고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당분간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특히 자사 모델 Gemini API 사용량은 분당 320억 토큰(+45.0% QoQ)을 기록하며 성장폭이 전분기 대비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전사 매출과 이익이 기대치를 하회한 가운데, TPU 판매를 위한 재고 구축 과정에서 영업현금흐름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FCF가 -90.7억 달러를 기록, 컨센서스(-22.26억 달러)를 크게 하회했고, 10월 마지막 거래일에 큰 폭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FCF 악화와 더불어 구글 주가 약세의 배경은 검색 및 유튜브에서의 광고 성장 둔화가 지목됩니다. 구글의 검색광고 사업은 AI로 인한 수익성 훼손 위기에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구글 검색창 대신 AI 챗봇에 직접 질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AI가 정리해 준 결과로 충분히 답변이 되었다면 사용자는 검색의 링크나 광고를 클릭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이는 AI에 광고를 결합하여 오히려 성장 모멘텀이 증대된 메타와는 대조적인 현상입니다.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사용자가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한 공간으로 AI에이전트로 대체될 위협이 작다는 평가입니다. 구글 경영진은 검색 쿼리 증가율의 상승을 근거로 우려를 일축했으나, 시장의 의구심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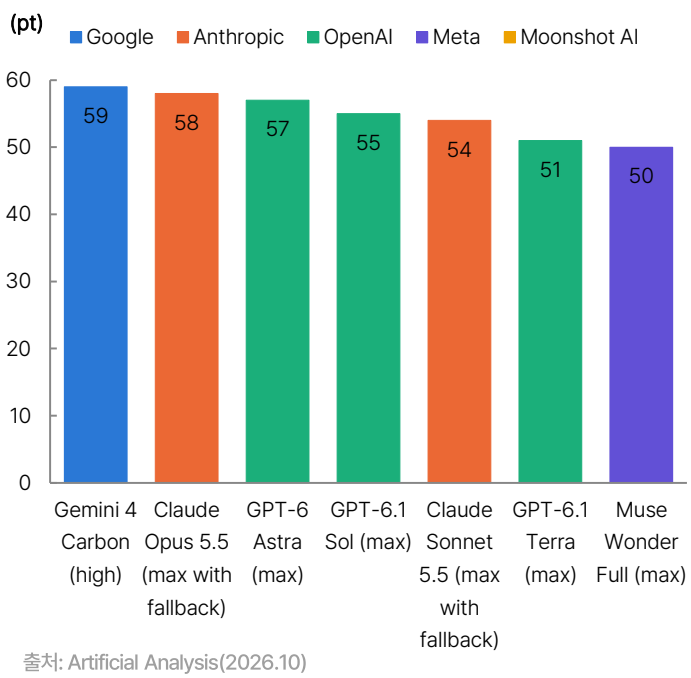
그럼에도 구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글은 Gemini 4 Argon과 Carbon을 몇 주 간격으로 연이어 공개하며 프런티어 모델 경쟁력을 회복했고, 특히 Carbon은 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 1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TPU가 창출할 매출과 현금흐름, 앤트로픽, OpenAI 등 프런티어 AI 기업들의 클라우드 수요를 고려하면 성장 모멘텀은 다시 강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구글 클라우드 부문 실적(2024.4Q ~ 2026.3Q)



출처: Alphabet, NH-Amundi자산운용 (2026.10)

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



출처: Artificial Analysis(2026.10)

앤트로픽이 온다 – 순수 AI모델 기업 최초 상장

■ 앤트로픽이 온다 – HANARO 미국에이전틱AI TOP2+ (0227L0)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물가 압력으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인 5%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고금리가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장은 AI 기업을 매출과 이익을 넘어 실질적인 현금 창출력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금이 다음 설비투자를 뒷받침하는 선순환이 지속될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글의 이번 실적이 던지는 함의는 무겁습니다. 구글의 AI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클라우드 고성장에도 검색·유튜브 광고는 기대에 못 미쳤고 잉여현금흐름도 부진했습니다. 이 부진이 수익화 과정의 일시적 시차인지, 수익 모델의 구조적 훼손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이 구글에 기대해 온 업사이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존 사업의 풍부한 현금으로 대규모 설비투자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이고, 다른 하나는 제미나이와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OpenAI, 앤트로픽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번 실적은 이 두 전제를 동시에 흔들었습니다. AI 서비스를 고도화할수록 정작 투자 재원이던 기존 사업의 수익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검색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인 만큼, 시장은 이번 부진이 수년에 걸친 수익구조 재편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앤트로픽의 상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I의 사업모델 잠식 위협은 구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빅테크들이 수익성 부담에도 인프라 경쟁에서 이탈하지 못하는 것도, 이 투자가 새로운 시장을 잡기 위한 공격이자 기존 사업을 지키기 위한 방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빅테크 실적에서는 AI 매출과 기존 사업이 섞여 있어, AI 자체가 돈을 버는지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반면 앤트로픽은 매출 전부를 AI에서 만들어냅니다. 'AI로 누구의 이익이 늘고, 그 이익이 누구의 현금으로 남는가'라는 질문에 처음으로 공개 장부로 답할 기업이 앤트로픽입니다.

실제로 이번 실적 시즌 곳곳에서 앤트로픽의 존재감이 확인되었습니다. SpaceX 매출의 34.5%를 차지한 최대 고객이 앤트로픽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앤트로픽은 구글에 최소 1,145억 달러의 컴퓨트 지출을 약정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449억 달러 규모 Azure 계약도 11월부터 개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앤트로픽이 직접 시장에 들어옵니다. 10월 26일 공개된 S-1에 따르면 티커는 'ANT', 상장 거래소는 나스닥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1월 초 로드쇼를 시작으로 추수감사절(11월 26일) 전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트로픽 증권신고서 (FORM S-1) 서문



We believe that AI is one of the most consequential technologies in human history. If managed well, it could rapidly accelerate scientific innovation, greatly increase economic growth rates, bring cures for major diseases within reach, and solve problems that have resisted generations of human effort.

Anthropic aims to realize these benefits while navigating and preventing the risks that come with a technological revolution this fast and this powerful.

There are four things that we would like any investor in Anthropic to understand: the incredible potential of depend on scale was surprising, but predictions made on the basis of the scaling laws have proved true again and again.[1]

The phenomenon is somewhat analogous to Moore's law for computer chips, under which the computing

출처: Anthropic, NH-Amundi 자산운용 (2026.10)

1) 한국시간 2026.10.29 오전 6:00 기준

앤트로픽이 온다 – 파운데이션 모델과 인프라의 재평가 기대

■ 앤트로픽이 온다 – HANARO 미국에이전틱AI TOP2+ (0227L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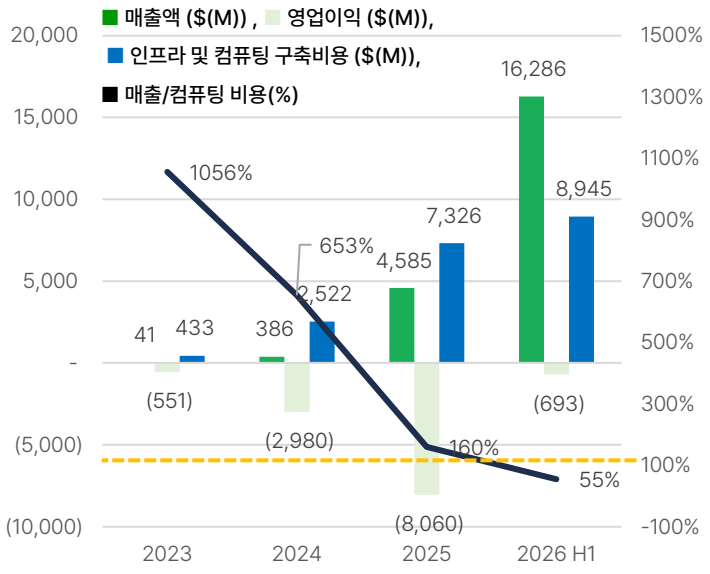
이러한 환경에서, 앤트로픽의 숫자는 더욱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26일 공개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앤트로픽의 2026년 상반기 매출은 약 16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4배 늘었고, 대규모 순손실의 대부분은 전환사채 관련 회계상 비용이었습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컴퓨팅 비용 1달러당 매출도 2025년 약 0.6달러에서 3분기 1.7달러로 높아졌습니다. 매출이 연산 비용보다 빠르게 늘며 AI 모델의 경제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건은 이 개선이 지속 가능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입니다. 그 해답은 고성능 파운데이션 모델이 앞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현재 앤트로픽의 성장은 기업용 에이전트와 코딩이 이끌고 있으며, 다음 성장축으로는 AI for Science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AI 도입이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개선에 집중되었다면, 프론티어 모델은 신약 개발, 신소재 연구 등 풀기 어려웠던 문제에 접근하며 새로운 산업과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I의 다음 성장 동력은 비용 절감을 넘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신규 수요는 연산 공급망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고성능 모델의 수익화가 추가 연산 투자를 뒷받침하고, 확대된 인프라가 다시 모델 성능과 신규 수요를 끌어올리는 선순환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 인터넷 등 과거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과잉투자 이후 조정을 겪었듯, 공급망 전반의 일괄적인 수혜보다는 실제 수요와 연결된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률 둔화와 대규모 컴퓨트 약정 부담 역시 앤트로픽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변수입니다. AI 모델의 성장과 연산 인프라의 확대는 서로 대립하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관계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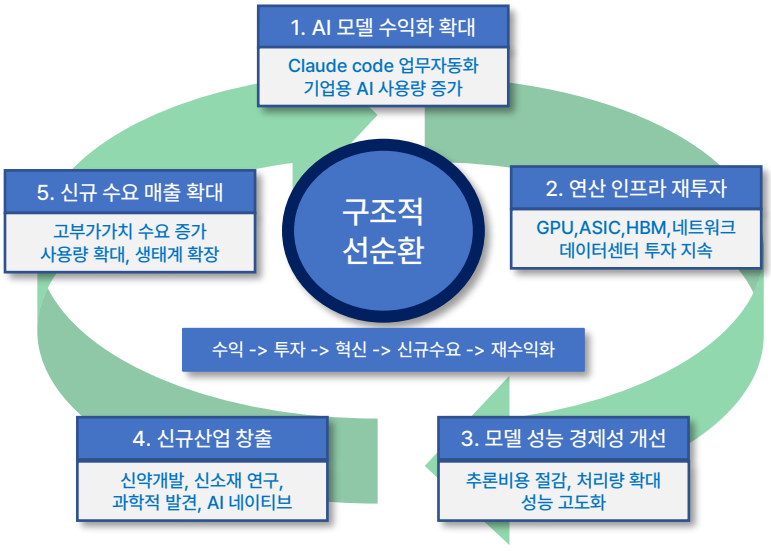
앤트로픽의 상장은 AI 투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AI 기업이 처음으로 기업공개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받는 무대이자, AI 산업의 가치가 모델과 인프라 전반에서 재평가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운데이션 모델과 AI 인프라를 함께 담은 HANARO 미국에이전틱AI TOP2+ ETF는 AI 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그 과정에서 창출되는 가치에 함께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실적 추이(2022 ~ 2026.1H)



출처: 앤트로픽 증권신고서, NH-Amundi 자산운용 (2026.10)

고성능 파운데이션 모델의 생태계



출처: NH-Amundi 자산운용 (2026.10), 해당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1)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2130357/000162828026067168/anthropicpbc-sx1.htm

HANARO 미국에이전틱AI TOP2+(0227L0)

투자포인트

01 에이전틱 AI가 가져오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자율적 과업 수행자 – 일을 대신 처리하는 AI, AI중심으로 변화하는 미래 산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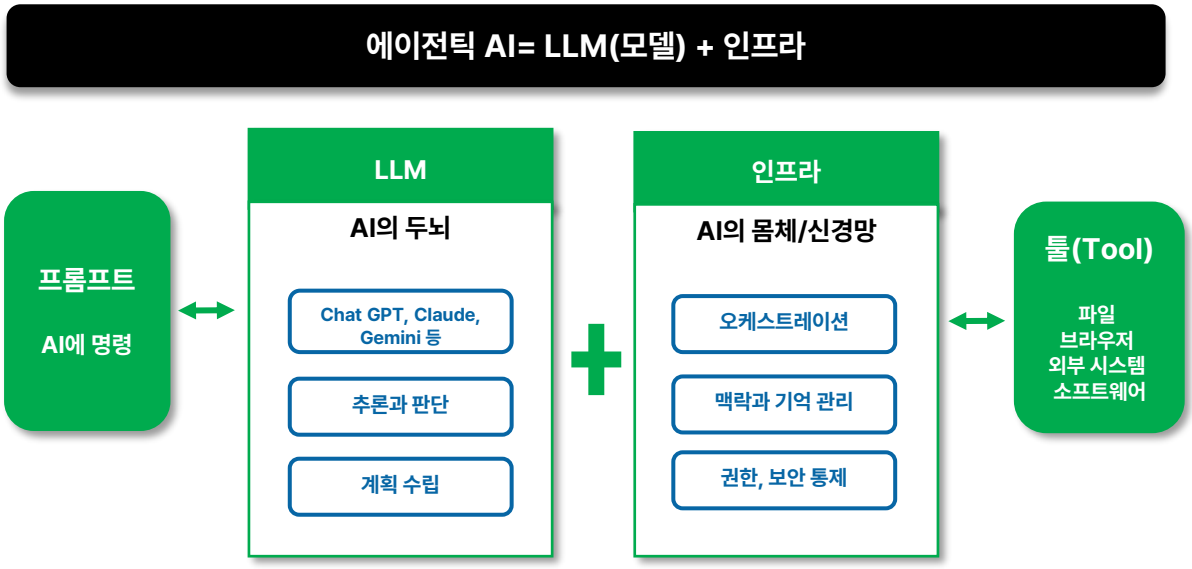
02 에이전틱 AI 밸류체인 속 핵심기업 선별적 투자

수혜주 속 핵심 종목만을 담는 '진짜' 에이전틱 AI 밸류체인 ETF

03 프론티어 AI기업 상장으로 계속되는 투자 모멘텀

앤트로픽, 오픈AI 등 프론티어 모델 기업의 상장으로 에이전틱AI 내러티브 확장

투자전략



편입종목

상위 10 종목		
NO	종목명	비중(%)
1	Microsoft	25.98
2	Alphabet	19.43
3	Meta Platforms	10.37
4	Amazon.com	8.77
5	Crowdstrike	6.17
6	Datadog	5.68
7	Dell	5.32
8	Palo Alto Networks	5.19
9	Snowflake	5.09
10	Arista Networks	4.69

종목명	HANARO 미국에이전틱AI TOP2+				
종목코드	0227L0				
상장일	2026.09.15				
상품유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비교지수	Indxx US Agentic AI TOP2+ Index				
위험등급	2등급(높은위험)				
수탁/사무	HSBC/한국펀드서비스				
보수	운용	AP,LP	수탁	사무	총보수
	0.40	0.01	0.02	0.02	0.45

- 기준일 26.10.30, 신한아이타스
- 상기 포트폴리오는 향후 운용전략,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설정 1년 미만의 상품으로 기타비용 미기재.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3. HANARO ETF 수익률 TOP5(3개월)

HANARO ETF

기준일: 2026.10.30

ETF명	투자포인트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 3M 수익률(세전) +19.56%	• 종목코드: 479850 • 규모: 544억 • 상장일: 2024.02.27 • 투자위험등급: 2등급 • 합성총보수: 연 0.5834% • AI반도체 수퍼사이클, 가동율 상승과 증설 투자 확대로 성장의 기회를 맞은 한국의 반도체 공정 기업 • 성장성과 모멘텀을 기준으로 선별한 반도체 소부장 주도주 • 합성총보수 연 0.5834% (집합투자 0.40% AP/LP 0.01%, 신탁 0.02%, 일반사무 0.02%, 기타비용 0.1334%) • 증권거래비용 0.0852%(직전 회계연도 기준)
HANARO Fn K-반도체 3M 수익률(세전) +15.23%	• 종목코드: 395270 • 규모: 2조 9,837억 • 상장일: 2021.07.30 • 투자위험등급: 1등급 • 합성총보수: 연 0.5087% • AI 발전으로 수퍼사이클에 진입한 K-반도체 • 구조적 수요확대와 공급부족으로 사이클 장기화 • 압도적인 실적에 기반한 주주환원으로 재평가 기대 • 합성총보수 연 0.5087% (집합투자 0.36% AP/LP 0.05%, 신탁 0.02%, 일반사무 0.02%, 기타비용 0.0587%) • 증권거래비용 0.0256% (직전 회계연도 기준)
HANARO 코스닥150 3M 수익률(세전) +12.36%	• 종목코드: 304770 • 규모: 167억 • 상장일: 2018.08.14 • 투자위험등급: 1등급 • 합성총보수: 연 0.2448% • 국내 코스닥시장을 대표하는 코스닥150지수 •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한국의 미래 성장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에 투자 • 합성총보수 연 0.2448% (집합투자 0.17% AP/LP 0.01% 신탁 0.01%, 일반사무 0.01%, 기타비용 0.0448%) • 증권거래비용 0.0151% (직전 회계연도 기준)
HANARO Fn 5G산업 3M 수익률(세전) +12.07%	• 종목코드: 367740 • 규모: 203억 • 상장일: 2024.01.18 • 투자위험등급: 2등급 • 합성총보수 연: 0.5623% • 데이터 트래픽의 구조적 증가와 네트워크 투자 확대 • AI네트워크 인프라 밸류체인의 수직적 포착 • 합성총보수 연 0.5623% (집합투자 0.36% AP/LP 0.05%, 신탁 0.02%, 일반사무 0.02%, 기타비용 0.1123%) • 증권거래비용 0.0181% (직전 회계연도 기준)
HANARO 미국AI광통신 3M 수익률(세전) +9.63%	• 종목코드: 0215T0 • 규모: 67억 • 상장일: 2026.07.14 • 투자위험등급: 2등급 • 총보수: 연 0.45% • AI인프라의 신 병목 네트워크. 엔비디아,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가 선도하는 광통신 전환 로드맵에 투자 • 미국 광통신 밸류체인 핵심 10종목 선별 • 총보수 연 0.45% (집합투자 0.40% AP/LP 0.01%, 신탁 0.02%, 일반사무 0.02%) • 설정 1년 미만 상품으로 기타비용 미기재. 증권거래비용 추가로 발생 가능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신한아이타스, (레버리지, 인버스 ETF 제외)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NH-Amundi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1415호 (2026.11.03~2027.11.02)
-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 인사이트 및 추천 상품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환율변동, 자산가격 변동, 금리변동 등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ETF 거래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 추적오차 및 괴리율이 확대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전망자료는 현재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는 이 금융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본자료의 구성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바보호

HANARO ETF

COPYRIGHT 2024 NH-Amundi자산운용(주), ALL RIGHTS RESERVED